

# '저마다의 속도로 유연하게'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보고전 4월 23일까지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육선)은 다음 달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보고전인 '저마다의 속도로 유연하게'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재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6기는 지난 1월 공모를 시작해 권영성, 김명득, 김영진, 박승만, 오지은, 이부안(이승현), 이을 등 7인으로 회화,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뤄졌다.

'저마다의 속도로 유연하게'는 팔복예술공장에서 1년동안 활동할 6기 정기 입주작가 7인을 소개하는 자리로, 그간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대 예술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작업해 온 작품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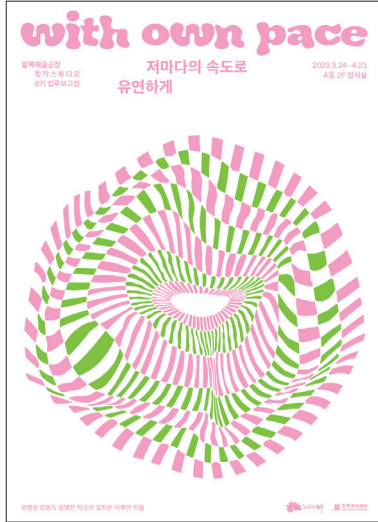
7인 작가의 사유와 철학을 담고있는 작품을 통해 화폭에서는 가능할 수 없던 깊이로, 삶의 속도와 방향성을 전달하며 미세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문화재단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7인의 입주보고전을 시작으로 팔복살롱, 기획세미나, 리서치투어, 비평가매칭, 오픈스튜디오, 국내 네트워크 교류, 아카이빙 구축 등 창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재단 창작기획팀 김진 차장은 "창작스튜디오 6기 입주작가 7인이 1년동안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타 장르의 작가와 만남을 통해 확장된 개념의 작업과 지역예술인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저마다의 속도로 유연하게' 웹포스터

## 미술관 솔 '전북 미술, 세계로'展

2023년 전북 서양미술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연속 기획전 '전북 미술, 세계로'가 오는 4월 5일까지 미술관 솔에서 전시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에 따르면 최근 외국계 유명 3대 경매사들이 모두 한국에 사무소를 열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윤명로(정음 출생)와 이건용(군산대 명예교수) 화백이 인기를 얻으며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먼저 윤명로의 작품은 개념에서의 탈피로 그린다는 행위가 뚜렷해졌는데, 그린다는 행위가 서양적인 붓의 타치가 아니라, 동양적인 준비를 연상케 하는 속도를 머금고 있으며, 많은 형상과 그려진 준비가 중복해서 존재하고 있다.

또 이건용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특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을 이끌어 온 대표주자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생태계 속에서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김세영, 김영창, 김진석, 김한창, 문운모, 박계성, 박민평, 박철교, 이춘자, 장완, 진양욱, 천철봉, 최예태, 홍순무 등 총 16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미술관 솔 4층 전시장에서는 '참암 이삼만', '석치 채용신'의 상설 기획전시도 관람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10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2023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진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박물관에 따르면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의(衣)·식(食)·주(住)와 관련된 주제로 나이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衣)에서는 전통 복식 및 한복 키링 제작', '식(食)에서는 선사시대 토기의 기능 및 용도를 바탕으로 한 토기복원과 나만의 머그잔 제작', '주(住)에서는 문서에 사용된 인장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수학교, 농어촌지역 및 문화소외계층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방문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박물관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책임 운영하는 박현수 학예실장은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결과, 9년 연속으로 도민들에게 무료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다양한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전시·교육·학술연구 등을 진행, 지역사회에 인문학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청년 소규모 모임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정운)은 '2023년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사업에 참여 할 청년 소규모 모임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모임이 주체가 돼 지역문제와 청년문제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을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문화 기획자 등 지역의 문제를 문화예술로 풀어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청년 소모임 10개팀 내외를 선발하며, 각 모임별 350만원씩 일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멘토링을 지원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청년기획자 및 활동가를 발굴한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10일까지 전자우편(cool-js@jct.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독일어로 만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전북대 독어교육과·독일학과, 27일 독일어 뮤지컬 공연 마련

'사운드 오브 뮤직'이 독일어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전북대학교 독어교육과(학과장 김화임)와 독일학과(학과장 신효식)는 학생들에게 독일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독일어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 진수당 2층 바오로홀에서 무료로 열린다.

특히 지난해 전북대에 80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던 '영산 김정옥 교수의 장학기금'을 통해 기획, 인문정신을 강조한 기부자의 뜻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공연은 독어교육과 및 독일학과 학생들이 기획부터 스텝, 배우 등을 모두 맡았다. 학생들은 지난해 6월부터 김정은 성악가의 지도를 받아 이 작품을 준비했고, 발전지원재단 김정옥교수장학기금에서는 후원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음악과에서도 학생들이 나서 반주를 함께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레미솔과 에델바이스와 같이 친숙한 음악들을 독일어로 들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신효식 독어교육과장과 김화임 독일학과장은 "이번 독일어 뮤지컬 공연은 학생들이



로 하여금 독일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동시에, 독일어 지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배역의 비중이 상관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더 보람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선진사례 '주목'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들, 운영 시스템 등 노하우 벤치마킹 이어져

익산예술의전당이 국내 문화예술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으로 국내 문화예술계의 선진사례로 부상해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북구문화센터와 천안예술의전당, 제천예술의전당 등 3곳의 관계자들이 익산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등 벤치마킹에 나섰다.

광주북구문화센터팀 6명은 지난 20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미술관과 소리문화예술회관 등을 둘러보며 운영 시스템 등 선진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했다.

이달 초에도 천안예술의전당 정승택 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지난달에는 제천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이 방문해 익산예술의전당 운영 방안과 공연장 시설 관련 전반을 살펴보고 선진사례와 여러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는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문화예술 행정과 익산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이 타 기관들의 선진사례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익산예술의전당 시설과 운영방



식 전반이 공연문화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4월에 개관한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로 개관 8년차를 맞아 '문화 중심도시 익산'의 가치를 내걸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행복한 품격도시 실현을 위해 주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모범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공연 제공 등 지역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노후유가 선진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